

# 우리 문화 속 흰나비는 왜 불길함의 상징 코드였나?

박 해 철 (국립농업과학원)

## ∴ 나비가 지닌 우리 문화의 상징성

우리 선조들은 여러 곤충 가운데 나비만은 들어내 놓고 편애했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나비가 지닌 다양한 상징성 가운데는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전해 온다. 가장 잘 알려진 나비 대표 상징성은 ‘아름다움’, ‘행복’, ‘사랑’과 같은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나비에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이다. 다른 곤충에 비하여 큰 날개를 가졌는데, 수놓은 미세한 비늘들이 그 날개를 덮고 있어 나비를 화려하고 멋있는 존재로 각인시켜 주었다. 또한, 나비가 ‘행복’을 상징하게 된 연유는 ‘호접지몽(胡蝶之



《그림 1. 한쌍처럼 어울려 보이는 산호랑나비》



《그림 2. 나비문양의 자물쇠 장식》

夢)’이라는 고사로부터 나왔다.

《장자》의 <제물론편(齊物論篇)>에 나오는 것으로,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다가 나비가 되어 꽃들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녔다. 즉, 장자는 나비가 되어 온갖 꽃의 꿀을 빨아먹으며 큰 행복을 맛보았다고 한다.<sup>1)</sup> 이 같은 장자의 고사가 전해온 이후로 나비는 기쁨과 행복을 뜻하

는 상징으로 이어져왔다. 나비가 ‘사랑’을 상징한 것은 속담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꽃 본 나비다.”, “나비가 꽃을 희롱한다.”, “꽃 본 나비가 담 아니 넘어갈까?” 등과 같이 나비는 남성을, 꽃은 여성을 의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남성 입장의 나비가 꽃을 찾아 적극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정열적인 사랑에 비유되었다. 또한, 쌍으로 나는 나비, 즉 짝짓기를 위하여 꽃 위를 노닐거나 쌍으로 있는 나비(그림 1)는 한 쌍의 기러기만큼이나 부부의 금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았다. 이렇게 아름다움, 행복, 사랑과 부부의 금실과 같은 의미를 나비가 지니고 있기에 혼례식에 쓰이는 활옷의 소매를 비롯하여 부부가 쓰는 용품과 규방에서 사용되는 용품에 나비의 문양과 장식(그림 2)이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나비에겐 좋은 상징성만 있는 게 아니다. 나비는 죽은 자의 영혼을 뜻하거나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사자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다. 특히 삼월 삼짇날과 같은 이른 봄에 처음 보는 흰나비에게서 선조들은 부모의 죽음이나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불길한 징조로 받아드려 왔다. 문제는 그 같은 상징성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곤충 문화의 역사 속에서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해석되지 않는 미궁 속에만 빠져 추측만 해대고 있었다.

## ∴ 흰나비에 얽힌 우리의 문화

### 가. 삼월 삼진날의 나비점

삼월 삼진날은 음력 3월 3일로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는 날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로서 길일로 여겨왔다. 사람들은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외로 나가 이 날을 즐겼다. 여성들 역시 산과 들로 가서 꽃을 따고 화전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모처럼 집밖으로 나가서 자연을 즐기다 보면, 봄날의 파스함이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한낮에는 훌연히 나타난 나비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음력이라서 매년 양력으로 치면 일정하진 않지만, 4월 초 또는 중순의 어느 날이었을 거다. 겨울에 성충 나비로서 월동한 네발나비, 청띠신선나비와 빨나비가 보일 수 있고, 또한 번데기로 월동해서 갓 성충 나비가 된 흰나비와 노랑나비, 호랑나비, 멧팔랑나비 같은 종류도 조금은 이르지만, 이른 봄날이 며칠 계속해서 따뜻해 왔다면 관찰될 수도 있는 시기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때 처음 본 나비의 색에 따라서 행운 또는 불운에 대한 점을 찻던 습성을 갖고 있었나 보다. 예를 들어 “봄에 노랑나비를 보면 먹을 복이 있고, 호랑나비를 보면 호사를 한다.”라고 하였고, 특히, “삼월 삼진날 처음에 노랑나비를 보면 길하다”라고 여길 정도로 노랑나비는 행운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흰나비를 처음 보면 매우 흉한 일이 발생할 거라는 전조 속신들이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삼진날 처음에 흰나비를 보면 상주된다.”, “이른 봄에 흰나비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에 초상이 난다.”, “초봄에 흰나비를 잡으면 상주된다.”, “첫봄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상주된다.”, “봄에 흰나비를 먼저(노랑나비와 흰나비 중에서)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속신어만 십여 가지가 된다. 또한, 이것이 발전하여 “첫날밤에 흰나비를 보면 과부가 된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이 같은 속신어를 따르게 된다면, 흰나비를 보거나 잡거나 한다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흰나비의 속신어는 야외에서 첫 놀이를 하는 삼월삼짇날에 재미삼아 봤던 점의 일종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실 흰나비와 노랑나비 모두 번데기로 겨울을 난다. 성충의 몸으로 월동한 빨나비나 청띠신선나비는 봄날이 따뜻해지면 바로 날아다닐 수 있지만, 흰나비와 노랑나비는 그럴 수가 없다. 번데기에서 날개돋이를 끝내야 나올 수 있으니 따스한 봄날이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나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선조들이 나비로 친 점은 이른 봄날 흰나비, 노랑나비와 호랑나비의 희귀성을 반영한 셈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매우 흔했다면, 이 같은 전조 속신이 여기저기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전승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나. 흰나비로 변한 아랑

나비 전설 가운데 흰나비의 이야기로서 대표적인 것이 「아랑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sup>2)</sup>, 조선 명종(明宗) 때의 밀양부사에게는 아랑이라는 열아홉 살 먹은 예쁜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한데 아랑을 사모하는 젊은 관노가 영랑



《그림 3. 아랑을 모셔둔 사당》

투로 그녀를 데려가 갑자기 덤벼들었는데 아랑이 죽을힘을 다하여 반항하니 관노는 그만 칼로 그녀를 찢러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는 감쪽같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결국 딸을 찾지 못한 부사는 다른 곳으로 이임해 가고, 후임으로 새 부사가 부임해 왔다. 하지만, 오는 부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차례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날, 무사 출신인 한 늙은이가 밀양부사를 자원을 하였다. 그는 부임 첫날밤에 촛불을 사방

에 켜놓고 잠을 자지 않고 무언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정말 밤이 깊어지자 갈가리 찢어진 옷을 입고 피투성이로 머리를 풀어헤친 한 처녀가 나타나, 부사에게 공손히 절을 하였다. 아마도 다른 부사들은 이 상황에서 놀래 죽었던 모양이다. 그 처녀 귀신은 자기가 죽게 된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내일 자기가 흰나비로 변하여 원수의 갓에 앉을 터이니, 원수를 꼭 갚아 달라는 말을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날이 밝아 관노들을 모두 집합시켜 놓았더니, 바로 그때 흰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한 관노의 갓에 앉는다. 그가 바로 아랑을 죽인 관노였던 것이다. 결국 그 관노는 죄를 자백하였고, 사형에 처해지면서 아랑의 원수를 갚아 주었다.

전설의 아랑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 속에서도 정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만인에게 알리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 만큼 유교적 덕목에 충실한 여성으로 비춰진다. 그로 인해 여러 신관 사도들을 죽게 만드는 일도 발생하였지만, 자신의 정절을 만인에게 알린 동시에 자신을 가해한 사람을 밝혀 결국 죽음으로 별주게 했다. 그 후 밀양에서는 처녀들이 이 같은 아랑을 본받게 하고자 밀양 남천강 영남루 밑 대밭 속에 비석을 세웠을 뿐 아니라, 사당인 아랑각(그림 3)을 지어 해마다 음력 4월 보름에는 제사를 지내왔다.

아랑전설과 매우 흡사한 전설이 「선산 조색시 전설」<sup>3)</sup>이다. 조선시대에 현재의 경북 구미시 선산지역에 부임한 조 군수의 딸에 관한 것으로 아랑전설과 같은 유형을 갖고 있다. 이들 전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조선시대 특히, 아랑전설에는 왕대가 명시되어 명종 때라고 한다. 명종 때인 1534~1567년에 이미 흰나비는 죽은 자의 사자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던 모양이다. 물론, 왜 흰나비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지의 연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도 흰나비와 죽음과의 연관성을 짓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만큼 우리 민속에서 아주 오래 전에 흰나비의 상징성이 굳어졌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4. 배추흰나비(좌측)와 대만흰나비(우측)》

#### 다. 배추밭 해충, 청벌레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해충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현대와 같은 살충제가 없었으며, 장비탈 것도 마땅치 않았다. 그저 손으로 잡아내어 땅을 파고 묻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sup>4)</sup>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면 해충의 신인 포신(醜神)에게 지내는 제사인 포제를 거행하여 해충들이 없어지길 기도하였다.<sup>5)</sup>

흰나비는 우리나라에 배추흰나비, 대만흰나비, 줄흰나비와 큰흰줄나비 4종이 산다. 이들 모두 생김이 매우 비슷해서 사람들은 그저 흰나비라 부른다. 이들은 1년에도 3~4회 발생하므로 겨울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나비로서, 일제강점기의 기록에서도 조선과 만주에 가장 흔한 나비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sup>6)</sup> 특히 배추흰나비와 대만흰나비(그림 4)는 마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흰나비였다. 흰나비의 애벌레는 몸이 녹색이라 한자로는 ‘청충(靑蟲)’ 즉 청벌레(그림 5)라 하기도 하고, 채소밭의 청벌레란 뜻의 채청충(菜靑蟲)<sup>7)</sup>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애벌레는 먹이식물로 배추, 무, 양배추, 케일 등 같은 십자화과 식물을 먹고 산다. 그러니 밭에 심었던 배추와 무 같은 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파리를 뒤져가며 일일이 잡아내야 하니 엄청 귀찮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벌레의 성충인 흰나비에 대해서 전통 농경사회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 흰나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졌을



《그림 5. 배추흰나비의 애벌레인 청벌레》

것이라고 본다는 주장도 있다.<sup>8)</sup>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청벌레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대량으로 발생해서 몇 고을을 황폐하게 만들만큼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해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

면, 멸강나방과 송충이를 비롯한 몇몇 해충은 조선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할 만큼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는 그런 해충에 대해서도 애증을 갖고 있었다. 민담에서 보듯이 ‘이’에 마냥 깨물리어 가려운 부분을 긁으면서도 <이의 보은>이란 해학적인 민담을 지으면서 견디어냈다. 가려움으로 몸서리치면서도 이를 죽이지 않고 향아리 속에 두어 나중에 이들이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우리의 민족성에서 보면, 청벌레 피해 때문에 그 같은 어두운 속신어가 생긴다는 주장은 다소 앞서 나간 것이라 생각된다.

### 라. 상복의 색과 같은 흰나비

색이 상징하는 것이란, 어떠한 색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연상을 하여 일반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색의 상징성과 의미는 모든 나라 혹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민족적 전통이나 습관 등에 따라 각 나라별로 전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흰나비의 날개색인 흰색이 우리 상복의 색과 같다는 점에서 동류연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여러 사람들이 추측해 왔다. 실제로 최소한 민간에서는 그런 생각을 주류로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먼저 전북 인산의 세시풍속 중 흰나비로 친

점을 이야기하면서 흰나비는 상복을 의미한다고<sup>9)</sup> 하였다. 또한, 여러 창부타령 속에서 약간씩 변형된 흰나비와 상복의 관계가 나온다. 울진지방에서 채록된 창부타령을 보면 흰나비가 무와 배추의 장다리꽃에 날아드는 데, 부모상을 당해서 흰나비가 흰색을 지닌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림 6. 소식을 가져 상복을 연상하게 한 배추흰나비》

창부타령

(일부 발췌)

백발같은 흰나비아

부모님 봉상을 입었거든

새벽단자 찬바람에

장다리밭으로 날아든다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울진지방)<sup>10)</sup>

나비요(謠)

백설같은 흰나비아

부모님 봉상을 입었는가

소복단장 꼭기하고

꽃밭으로 돌아든다 (달성지방)

또 다른 아이들의 놀이요 가락 속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경북 달성지방에서 채록된 민요<sup>11)</sup> 속의 흰나비는 백설처럼 흰웃을 입었는데 그 까닭



이 부모님 상을 당해서 소복단장을 하고 먹이를 먹으러 꽃밭으로 들어온다고 노래한다. 창부타령이든 놀이요든 모두 흰나비의 흰색은 상을 당해 입은 소복을 연상시킨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이 같은 대목은 경남 창녕에서 전해지는 춘향가<sup>12)</sup>에서도 보여준다. 즉, 여러 지역의 창부타령, 놀이요와 춘향가 등을 통해 상복의 흰색 때문에 흰나비(그림 6)에서 부모의 죽음 같은 불길함이 연상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런 상징성이 우리 문화 속에 고착되었는지는 알려주지 못했다.

### ∴ 대륙에서 찾아온 불길한 상징의 뿌리

먼저, 중국문자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서 흰나비(白蝶)가 우리처럼 죽음이나 불길한 일을 상징하는지 검색해 보았다. 다양한 검색 조건을 대비시켰지만, 명백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흰나비가 갖는 죽음과 불길함의 상징성은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닐까 싶다.

그 다음으로 하얀색 이미지의에 대한 관념을 찾아보았다. 중국대륙의 원류랄 수 있는 고대 중국문화로부터 하얀색의 이중적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었다. 고대 상(商)시대에는 하얀색을 크게 숭상해서 ‘하얀색의 시대’라고 일컫는 학자도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하얀색은 불길함과 죽음의 색깔을 상징해 오기도 했다. 주나라(周)와 전국시대의 관직과 제도를 기록한 책인 《주례(周禮)》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면, 그 당시는 구름이 갖는 다섯 가지 색깔을 보고, 길흉, 물난리와 가뭄, 풍년과 흉년의 기운을 구별했다고 한다. 즉, 구름 색깔이 푸르면 총해 입고, 하얗다면 누군가 장례 치를 일이 생기고, 붉으면 전쟁과 흉년이 발생하고, 검으면 물난리가 나고, 노랗다면 풍년을 맞게 된다고 했다. 바로 이쯤에서 흰색이 죽음과 관련된 장례와 상중의식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해온다.<sup>13)</sup>

그 다음으로 중국의 당나라 때 문화와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자료인 《유양잡조》 속으로 들어가 봤다. 흰나비 또는 흰색의 상징성을 주목하면서 찾아보았는데, 흰나비는 없지만, 하얀색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 책에 의하면, “집의 기둥에서 이유 없이 영지가 자랐을 때, 하얀색이면 상이 생기고, 붉은색이면 피를 보며, 검은색이면 해치는 일이 생기며, 노란색이면 기쁜 일이 생긴다.”고 했다<sup>14)</sup> 지은이 단성식<sup>s</sup>에 의하면<sup>15)</sup> “수행리 사저에는 몇 이랑의 과수원이 있다. 임술년(842년)에 삼 열매처럼 생긴 어떤 별이 흙을 이겨 뜰앞 처마에다 집을 지었는데, 크기가 계란만 하고 색깔이 아주 흰 게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동생이 싫어한 나머지 부숴버렸다. 그해 겨울 과연 손과 발이 트고 부어올랐다.”라고 적고 있다. 또한, 《남사(南史)》에 ‘송나라 명제(明帝)가 하얀 문(백문 白門)을 말하기를 꺼려했다’는 언급도 했다. 그리고 《금루자(金樓子)》에는 ‘자식이 결혼하는 날에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 휘장과 장막이 흰색으로 변하면 불길하다’고도 하였다. “그러니 세속에서 하얀색을 꺼려한 지가 오래 되었음을 알겠다.”라고 단성식은 적고 있다. 《유양잡조》에서 보여준 이 같은 기록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서 당나라 이전부터 흰색에 대한 불길한 이미지가 강화되어 그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껏 찾아본 대륙의 사례를 우리의 문화와 비교해 보자. 우리 민족은 부여시대부터 하얀색을 숭상하여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흰옷을 즐겨 입었다. 하얀색이 가진 상징성은 깨끗함은 물론 순결하고 결백하고 소박하며 무욕을 나타내는 내적 요인에 있었다고 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기질이다<sup>16)</sup>라고 흔히 말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고유로 갖는 하얀색에 대한 상징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 하얀색의 상징성 역시 중국처럼 모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불길함이나 죽음과 연관된 의식의 상징 색이었다. 중국은 우리처럼 이른 봄 나비를 보면서 길흥을 점치진 않았으나, 다양한 자연물로 점을 친 것은 사실이다. 그 가운데, 《유양잡조》에서는 “영지가 자랐을 때 흰색이면 상이 생기고, 붉은색이면 피를 보며, 흑색이면 해치는 일이 생기며, 황색이면 기쁜 일이 생긴다.”라고 했다. 우리의 나비 점에서도 “삼진날 처음에 흰나비를 보면 상주된다.”라고 한 대신에 “봄에 노랑나비를 보면 먹을 복이 있고, 호랑나비를 보면 호사를 한다.”라고 했

다. 짐을 치는 대상이 중국대륙의 영지에서 한반도의 나비로 바뀌었을 뿐 색을 갖고 짐을 친다는 것은 같다. 또한, 색의 관념 역시 하얀색과 노란색은 그대로 이어졌다. 다만 하얀색에 대한 불길함을 상징하는 강도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중국 문화에서는 하얀색에 대한 불길한 인식이 어느 것이든지 흰 것이면 강한 부정적 이미지를 느꼈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세고 대상이 넓었다. 하지만, 우리는 흰나비에 국한해서 그것도 음력 삼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기에 처음 만나는 흰나비에만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을 뿐이다.

### ∴ 시대가 변하면 문화도 변해

흰나비는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서 항상 죽음과 불길함을 상징해 온 것은 아니다. 우리의 흰나비는 좋은 예지자의 역할도 했다. 경남 밀양의 <무봉사의 전설>에서는 무봉사를 세운 법조스님에게 호랑이가 나타났다가 다시 흰나비로 변하여 날아가면서 후세에 중국의 천자가 될 아이가 태어날 집을 예지해 주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이 흰 코끼리와 새하얀 연꽃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sup>17)</sup> 이로 인하여 불교에서는 흰색을 좋아하며 그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그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 전설에서 흰나비는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예지자이다. 또한, 창부타령에서 보듯이 흰나비가 부모가 죽은 표시를 하여 흰색이지만 그들이 장다리 밭이나 꽃밭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열씨구나 하고 좋아하며 즐겨왔다. 즉, 우리 선조들은 흰나비를 이용하여 길흉의 짐을 치고, 흰나비의 하얀색에서 죽음과 동류의식을 느껴왔지만, 그것은 그 때일 뿐 항상 흰나비를 싫어해 온 것은 아니다. 그들의 나뭇 거리며 모습을 보고 노래를 하고 즐겼으며, 스스럼없이 대하고 좋아했던 것이다.

흰나비의 상징성처럼 우리들이 생물에 갖고 있는 여러 상징들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의 옛 자료를 검색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징성은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으로부터 기원되어 우리에게 유입되었거나, 미지의 다른 것으로부터 변형된 문화일 수도 있다. 이처럼 생물문화라는 것도 웅덩이처럼 고여 있기도 하지만, 흐르는 물처럼 이동하기도 한다는 것을 흰나비의 사례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것이다.

- 
- 1) 임영주, 나비 도상 p.145. In: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 2) 이훈종, 나비 무속·민속 p.142. In: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 3) 『한국구비문화대계』 7-15-구미시·선산군편(1)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4) 정조실록 48권 22년(1798) 4월 25일(己未) 벼와 묘목을 손상시키는 벌레를 제거하기를 당부하다.
  - 5) 『국역 해괴제등록』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 6) 村田懋麿. 1936. 『鮮滿動物痛鑑』 目白書院 p.484.
  - 7) 실시학사 고전문화연구회(윤키고 엮음) 2009 『완역 이옥전집 3 벌레들의 괴롭힘에 대하여』 휴머니스트출판그룹 p.196.
  - 8) 김정환·이원규, 1992. 『우리 나비 백가지』 현암사 pp.4-5.
  - 9) 『전라북도 세시풍속』 2003, 국립문화재연구소 pp.437-439.
  - 10) 한양명 외, 2010. 『울진민속총서, 울진의 민속문화(하)』, 울진문화원/(주)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p.453.
  - 11) 임동권 편, 1961. 한국민요집 I. 집문당. pp.339-351.
  - 12) 조희웅·이선형·조재현, 2005. 영남 구전민요 자료집.
  - 13) 이주노·김은희(역) 색채와 중국인의 삶. 전남대학교출판부. pp.80-84, 318-319.
  - 14) 정환국 율김(단성식 지음), 역주 유양잡조 1권 p.370.
  - 15) 정환국 율김(단성식 지음), 역주 유양잡조 1권 p.406.
  - 16) 조규화 미풍양속 15 한복. 매일경제 1983.5.30일자.
  - 17) 이주노·김은희(역) 색채와 중국인의 삶. 전남대학교출판부. p.213.